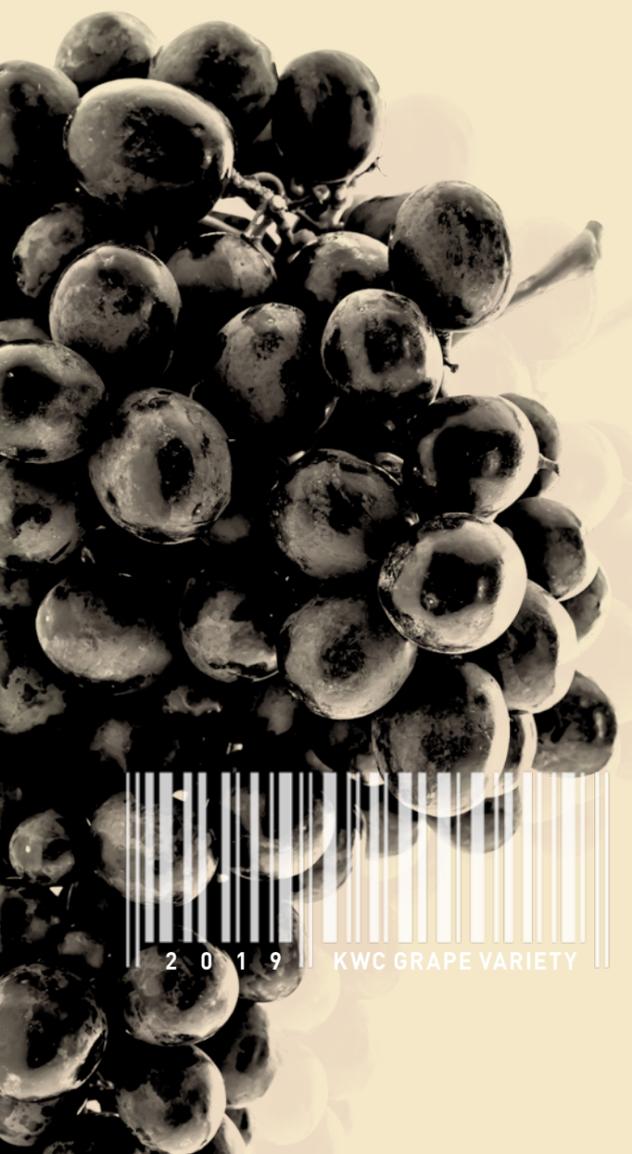


KWC 수상 와인리스트에서 찾은 낮선 품종들 I

코리아와인챌린지(KWC) 2019 수상 와인리스트를 훑어보다 '어느 때보다 낮선 품종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즘 글로벌 와인 트렌드인 '다양성'이 KWC 수상 와인리스트에도 나타나고 있음이다. KWC 수상 와인리스트를 보며 낮선 포도 종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 궁금한 품종은 수상 와인리스트에서 골라 마셔 봐도 좋겠다. 글 강은영 사진 장영수, 위키피디아



Beta

베타



콩코드(Concord) 품종과 비티스 리파리아(Vitis riparia) 계열의 선별된 품종을 교배하여 나온 품종이다. 북미에서 주로 재배된 품종으로 추운 겨울을 잘 견디기로 유명하다. 와인을 빚는데 널리 애용되는 품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스위트 와인 부문 트로피를 받은 아이스바인(중국 백두산에 재배한 베타로 빚은 와인)은 희귀아이템이라 할 만 하다.

TRY Hualande Eiswein Sekt Klassische Flaschengarung



Rotgipfler

로트기플러



오스트리아 테르멘레기온(Thermenregion) 지역의 토착품종이다. 트라미너(Traminer)와 로터 벨트리너(Roter Veltliner)의 접목으로 탄생되었다. 와인으로 빚어지면 고소한 견과류와 스모키한 풍미의 조화가 뛰어나다. 진한 레몬색을 띠고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향을 풍기며 입안 가득 열대과일, 흰 꽃 향이 전해진다. 경쾌한 산도와 적절한 구조감을 지녔다.

TRY Johanneshof Reinisch Rotgipfler



Nero di Troia

네로 디 트로이아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의 토착종으로, 우바 디 트로이아(Uva di Troia)라고도 불린다. 이름은 풀리아 주의 포지아 시에 있는 트로이아(Troia) 마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지아는 네로 디 트로이아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테루아를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네로 디 트로이아로 만든 와인은 생생한 컬러와 우아한 바이올렛 향이 특징이다. 탄닌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다.

TRY 1 Podere 29 Gelso d'Oro **2** Cantine Paradiso Angelo Primo



Graciano

그라치아노



스페인 북부의 리오하와 나바라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는 레드 품종이다. 소출량이 적은 편으로 보통 수확은 10월 말경에 한다. 와인으로 빚으면 색과 아로마가 짙게 표출된다. 탄닌은 적당한 편이고, 오디, 바이올렛, 초콜릿 향이 특징이다. 리오하에서 그라치아노는 뽀빠리니오와 가르나차의 블렌딩 파트너로 자주 애용된다.

TRY 1 Beronia Reserva **2** La Rioja Alta Vina Arana Gran Reserva



Blaufrankisch

블라우프랑키쉬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레드 종으로 호이니쉬(Heunisch)와 또 다른 품종의 교배로 탄생했다. 다른 한 품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블라우어 그로벤(Blauer Groben)으로 추정된다. 와인으로 빚으면 검은 베리나 체리 향이 나며 산미가 뚜렷한 편이다. 탄닌과 구조감도 탄탄하다. 영할 때는 다소 거친 감이 있으나 숙성이 진행될수록 부드러운 결을 보여준다.

TRY Leo Hillinger Terroir



Castelão

카스텔라웅



포르투갈 전 지역에서 재배되는 레드 토착종으로, 특히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가에서 많이 재배된다. 포르투갈 품종답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페리퀴타(Periquita)나 하웅 데 산타렘(João de Santarém)이라 불리기도 한다. 와인으로 빚으면 향이 농밀하고, 영할 땐 탄닌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드러워진다. 포트 와인을 빚는데도 사용된다.

TRY 1 Porta 6 Tinto **2** Casa Santos Lima Palha Canas Reserva





Trincadeira

트린카데이이라

포르투갈에서 널리 재배되는 레드 품종으로, 포트 와인에도 자주 이용된다. 알렌떼주에서는 '트린카데이이라'라고 부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틴타 아마렐라(Tinta Amarela)라고 부르기도 한다. 좋은 컨디션에서 재배되면, 짙은 컬러에 과일 풍미가 가득한 포도를 얻을 수 있다. 영할 때는 허브 아로마가 나며 홍차 향을 연상케 한다. 탄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숙성력도 좋다.

TRY Casa Relvas Sao Miguel do Sul Red



Alicante Bouschet

알리칸테 부쉐

쁘띠 부쉐(Petit Bouschet)와 그르나슈를 교배하여 만든 품종이다. 프랑스에서 많이 재배된 품종으로 랑그독 루씨옹을 비롯한 남프랑스 일대에서 주로 재배된다. 스페인에서는 가르나차 틴토레라(Garnacha Tintorera)라고 불리운다. 그밖에 포르투갈, 코르시카, 터키, 칼라브리아, 이스라엘 및 북아프리카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와인의 색상을 짙게 하기 위한 용도로 블렌딩되기도 한다.

TRY Casa Relvas Madxa



Saperavi

사페라비

조지아가 고향인 레드 품종이다. 극심한 추위에도 잘 견디서 조지아의 카헤티(Kakheti) 지방처럼 고도가 높은 내륙지방에서 인기가 높다. 사페라비라는 이름은 조지아어로 '염료'라는 뜻이다. 그만큼 짙은 색을 내기로 유명해서,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품종들과 블렌딩되기도 한다. 와인으로 빛으면 산도도 적절히 높은 편이며 탄닌도 기본 좋을 만큼 적당히 느껴진다.

TRY Badagoni Saperavi Reserve



Arneis

아르네이스

이탈리아 베에몬테 지방에서 유래한 화이트 품종이다. 특히 로에로에서는 DOCG 등급의 와인으로 빛어지며, 랑게의 DOC 와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아르네이스라는 이름은 작은 악동을 뜻하는데, 재배에 까다로운 품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재배되면 꽃 향과 서양배, 살구 등의 화사한 향이 나고 바디감이 좋으면서도 파삭한 질감을 가진 매력적인 와인으로 빛어진다.

TRY Batasiolo Arneis



Agiorgitiko

아기오르기티코

그리스의 대표적인 품종이다. 로제부터 디저트 와인까지 만들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라이 레드로 양조된다. 오크 숙성 여부에 따라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한 와인은 붉은 과일 향이 두드러지며 미디움 정도의 산도와 부드러운 탄닌으로 마시기 편한 스타일이다. 오크 숙성을 하면 풍만한 질감과 높은 알코올, 잘 익은 탄닌이 드러난다.

TRY 1 Biblia Chora Plagios Red **2** Nemea Driopi Reserve



Rkatsiteli

르카트시텔리

조지아의 화이트 토착종으로 가장 오래된 포도 품종 중 하나다. 르카트시텔리는 한때 전 소비에트 연방 와인 생산량의 18%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여전히 조지아를 비롯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는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이 품종은 산도가 상당히 높아 와인메이커들은 수확을 최대한 늦추어 당도를 높이고 애쓴다. 높은 산도와 더불어 꽃 향과 스파이시한 아로마가 특징이다.

TRY Badagoni Kakhetian Noble White



Ansonica

안소니카

토스카나에서는 안소니카로, 시칠리아에서는 인졸리아(Inzolia)로 불린다. 시칠리아에서는 마르살라를 빛는데 많이 이용된다. 한편 토스카나 남단 질리오 섬에서 만드는 안소니카 코스타 델 아르젠티리오(Ansonica Costa dell'Argentario) DOC 와인에는 최소 85% 이 포도가 들어가야 한다. 견과류 향이 특징인 화이트 품종이다.

TRY Bibi Graetz Testamatta White



Bobal

보발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유래된 레드 품종으로 이 나라에서 뎀쁘라니요와 아이렌 품종 다음으로 많이 재배된다. 전통적으로는 벌크와인 생산에 이용되거나, 블렌딩에 이용되어 짙은 색을 내는 용도로 쓰이곤 했다. 하지만 요즘 와인 생산자들은 높은 고도에서 자란 보발 품종으로 퀄리티 와인을 빛기도 한다. 짙은 컬러와 탄탄한 탄닌, 높은 산도가 특징이다.

TRY Bodegas Albero Isabella Bobal





Feteasca Neagra

페테아스카 네아그라

루마니아의 오래된 토착종이다. 이 품종으로 와인을 양조하면 와인 이름에도 페테아스카 네아그라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루마니아의 남동부에 위치한 문테니아(Muntenia)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몰도바에서도 재배된다. 페테아스카 네아그라는 주로 드라이한 레드 와인으로 빚어지지만 세미 스위트나 스위트한 스타일도 찾아 볼 수 있다. 장기 숙성력도 좋은 편이다.

TRY Budureasca Feteasca Neagra



Tamaioasa Romaneasca

타마이오아사 로마네아스카

루마니아의 토착 화이트 품종이다. 자연적으로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스위트나 세미 스위트한 와인으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는 신선한 스타일에 드라이 화이트 와인으로도 생산된다. 이국적인 과일 향과 더불어 화사한 향이 나며 꿀과 같은 풍미가 특징이다. 몰도바에서는 부수이오아카 알바(Busuiocaca alba)라고 불린다.

TRY Budureasca Tamaioasa Romaneasca Premium



Nerello Mascalese

네렐로 마스칼레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북동쪽에서 주로 재배되는 레드 품종이다. 에트나(Etna)와 파로(Faro)에서는 DOC 와인으로 빚어진다. 레드 베리 향이 강하게 풍기며, 약간 꽃향기와 감초 향, 허브, 스파이시한 힌트도 느껴진다. 탄탄한 바디감에 탄닌도 꽤 느껴지고 숙성력도 좋은 편이다.

TRY 1 Vigneti Zabu IL PASSO Nerello Mascalese

2 Fantini Calalenta Terre Siciliane Rosato



Malagousia

말라구지아

그리스의 화이트 토착종이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품종을 양조학 교수 바실리스 로고테티스(Vassilis Logothetis)가 재 발견하여, 와인메이커 게로바실리우(Gerovassiliou)에게 소개하면서 빛을 보게 된다. 말라구지아는 드라이 와인부터 스위트 와인으로도 생산된다. 와인으로 빚으면 복숭아, 피망, 바질, 꽃 등 농밀한 향이 나며 상큼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TRY Gerovassiliou Museum



Touriga Nacional

또우리가 나시오날

포르투갈의 레드 토착종이다. 도우루 밸리에서 포트 와인을 빚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품종으로 요즘에는 질 좋은 테이블 와인을 빚는데도 애용된다. 와인으로 빚으면 탄닌이 풍부하고 미디움 이상의 바디감을 보여준다. 또한 짙은 블랙베리, 라벤더, 자스민 향을 풍기며 미네랄과 초콜릿 풍미도 느껴진다.

TRY 1 Casa Relvas Herdade Sao Miguel Escolha Dos Enologos

2 Casa Santos Lima Palha Canas Reserva



Aglianico

알리아니코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레드 품종으로, 몰리제, 풀리아, 캄파니아,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등지에서 많이 재배된다. 그 중에서도 고향인 캄파니아에서 수준 높은 DOCG 와인으로 빚어지며, 이에 버금가는 와인이 바실리카타의 알리아니코 델 불루레 DOC이다. 영할 때는 탄닌과 산도가 다소 센 편이나 숙성을 거치면서 한결 편안한 와인이 된다.

TRY 1 Vesevo Ensis Taurasi 2 Elena Fucci Titolo 3 Re Manfredi Serpara



Trepát

트레팍

스페인의 레드 토착종이다. 주로 까탈루냐의 코스테레스 델 세그레(Costers del Segre) DO와 콘카 데 바르베라(Conca de Barbera) 지역에서 재배된다. 로제 와인에 많이 애용되는데, 이 경우 라이트하고 신선하며 과일향이 풍부한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요즘은 레드 와인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경우 붉은 과일 향과 감초 향이 두드러지고 스파이시한 힌트가 살짝 난다.

TRY Conde de Caralt Rosado



Pecorino

베코리노

이탈리아 마르케의 화이트 토착종. 베코리노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염소를 뜻하는 베코라(Pecora)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포도송이가 열리자마자 염소들이 먹어치우는 바람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1980년대부터 이 품종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독특한 향기와 미네랄 뉴앙스, 숙성잠재력 등이 이 품종이 사랑받는 이유이다. ㄱ

TRY Velenosi Reve

